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눅 2:29)

오늘, 제직회

일시: 12월 17일(주일) 3부 예배 후, 본당

대상: 본 교회 시무장로, 교역자,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안건: 2023년 수입·지출 결산보고 및 2024년 수입·지출 예산(안)

* 오늘 교구 모임은 쉽니다.

* 교구별로 금요일집회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일, 공동의회 개최

일시: 12월 24일(주일) 3부 예배 후, 본당

대상: 본 교회 무흠입교인

안건: 2023년 수입·지출 결산보고 및 2024년 수입·지출 예산(안)

* 다음 주일 교구 모임은 쉽니다.

* 교구별로 금요일집회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서리집사 임명식

일시: 12월 17일(주일) 찬양예배시

대상: 신임 서리집사

2024년 찬양대원 및 오케스트라대원 모집

* 자세한 사항은 8면 참고

봉사위원회 봉사자 모집

봉사시간: 주일 종일 또는 시간대별 선택

지원방법: 봉사위원회 및 차량안내부에 방문하여 지원서 작성

예수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시므온과 안나 두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령님의 계시로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고 기뻐하였습니다. 대강절의 유래, ‘His Advent’는 본래 로마 황제의 오심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두 선지자는 로마의 황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귀하신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기에,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분의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가장 귀한 VIP로 여긴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간절해 질 것이고 성탄을 가장 큰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 감사예배

일시: 12월 25일(월) 1부(09:00), 2부(11:00) 장소: 본당

2023년 성탄축하 특별찬양

일시: 2023. 12. 22(금) 금요일집회시 주관: 연합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곡명: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제1부(예언과 탄생) 및 제2부 마지막 곡 (할렐루야)

2023 성탄 생명의 빛 기도회

일시: 12월 22일 금요일집회 후 장소: 본당 로비
진행: 온 성도가 생명의 불빛을 밝히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미니 LED초를 나누어 드립니다.

지하 주차장 환경 개선 공사에 따른 협조 안내

공사기간 중 가급적 대중교통, 카풀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1층 폐쇄: 12월 11일(월) ~ 1월 16일(화) 주일 주차 불가

2024년 충현교회 사역훈련 제6기 사역훈련생을 모집합니다.

* 주간충현 5면 참조

신청방법: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제출

신청기간: 12월 31일(주일) 까지

1. 남사역반 ① 주일반 (16:30~19:00) ② 목요일반 (19:00~21:30)

2. 여제자반 ① 수요일반 (14:30~17:00) ② 목요일반 (19:00~21:30)

2024년 충현교회 제7기 제자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안내

1. 남제자반

① 주일 16:30~19:00

② 목요일 19:00~21:30

2. 여제자반

① 화요일 10:00~12:30 ③ 목요일 10:00~12:30

② 수요일 14:30~17:00 ④ 여제자 65+반 (수 14:30~17:00)

3. 여직장인반

① 화요일 19:00~21:30

② 토요일 10:00~12:30

신청방법: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 1부, 배우자 동의서 1부를 작성한 후 제출
신청 및 모집: 12월 24일(주일) 까지

지난 주일(12월 10일) 설교 되새기기

기다림의 모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11:1-10)



지난 주 함께 살펴 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의 시작은, 한 사람의 부모로서 아기를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열망이었기에 결코 특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한 아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기다렸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통해 낳게 된 그 아들을 통하여,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가 많아져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 예수님의 탄생은 물론 오늘날에는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완성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다림이 있음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살아갔던 선지자들의 기다림은, 보다 입체적이고 총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장면(과거)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기다렸으며, 친히 심판하실 마지막 날(미래)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했던 선지자들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을 주는 이유입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 구약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 중 특별히 이사야서 7장과 9장 그리고 11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선지자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다렸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선지자가 기다렸던 '정조'와 '빛으로 오실 이'

웃시야의 손자이자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때, 아람의 여러 왕들이 침략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사 7:1-2). 괜찮으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도 아하스 왕은 두려워하며 그 예언이 이루어질 정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강건함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사 7:14-16)”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이가 태어나 장성하기까지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이 그 정조임을 선포하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 1:23)”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조용히 꿇고자 결심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마리아 태중의 아기가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었음과 그 아기의 이름(임마누엘)과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사야 시절은 물론, 요셉의 때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예언이 성령으로 수태됨을 가리킴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듯 보이거나, 너무 늦게 일어남으로 소용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기다림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지 않음을 믿고, 이루어질 언약을 소망함으로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기다리는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에, 기다림 그 자체가 의미 있는 나날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채 그저 앞날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현재를 의미 있게 채워가며 하나님과 함께 그 날을 맞이함을 가리켜 성경적 의미의 기다림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정조에 집중한 첫 번째 예언과 달리, 두 번째 예언은 태어날 아이가 어떤 인물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니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 9:1-2)” 아기는 동쪽끼리 싸우고 갈라지는 어두움을 배경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 9:6)”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생명의 빛이 어둠을 뚫고 비추어진다는 놀라운 선포를, 기다림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가 기다렸던 방법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1-2절)” 이새의 자손으로 오실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사 61:1)”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갈릴리 회당에서 읽으신 성경이 바로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눅 4:18). 이사야 11장과 이사야 61장에서 예언된 그 분이 예수님 자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3절)” 예수님의 특징인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자세로 살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더욱 더 사모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가 같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모습 (6-10절)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날 놀라운 평화를 가리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습 3:17)”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 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 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습 3:19-20)”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회복된 모습은 ‘칭찬과 명성’입니다. 간혹 기다림이 지우고 싶은 창피함이거나, 경쟁에서 패한 수욕과 같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의 이름이 망가지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실패나 놀림은 물론 지우고픈 인생의 모습조차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패배와 넘어짐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드시고 회복해주심을 믿고 나아가면, 저야 될 때도 아름답게 질 수 있고, 놓아야 할 때도 멋지게 놓을 수 있습니다. 칭찬과 명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다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담임목사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The Model of Waiting the Prophet of the Old Testament

(Isaiah 11:1-10)

Rev. Kyu Sam Han

The beginning of Abraham and Sarah's waiting we examined together last week was from the strong wish of a parent's giving birth to a child and raising him outstandingly, so it is difficult to be seen special. However, they awaited the baby that God had promised to give them on the recourse of the word until Abraham reached the age of 100. Through the son begotten by long waiting, primarily, the Israelites multiplied like stars of heaven and sand on the seashore, exited from Egypt, and after that, the birth of Jesus as well as today countless saints of the whole world have come to pay worship service to God as descendants of Abraham. We must remember there is a waiting which needs a long time till the completion reaches. As a person who receives and delivers the will of God, the waiting of prophets, who heard the voice of God, delivering the word, living embraced the will of God in their hearts, was three-dimensional and comprehensive. They entered the scene where the Israelites exited from Egypt(past) and waited for Jesus, and they awaited the Messiah of the last day(future) when he judged in person. That's why the waiting of prophets who were living with people in the world, but always checked themselves before God gives another level of challenge to us. Celebrating Advent,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what and how prophets awaited on the ground of words from chapters 7,8, and 11 of Isaiah among prophecies about Messiah recorded in the Old Testament.

The one coming as 'sign' and 'light', whom prophets awaited

In the days of Ahaz, the son of Jotham, son of Uzziah, king of Judah when several kings of Aram invaded, the heart of the people of Israel shook(Is7:1-2). Despite the prophecy of Isaiah the prophet that it shall be all right, king Ahaz was fearful and required the sign of the work to be accomplished.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Behold, the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Curds and honey He shall eat, that He may know to refuse the evil and choose the good. For before the Child shall know to refuse the evil and choose the good, the land that you dread will be forsaken by both her kings.(Is 7: 14-16)" Isaiah the prophet declared it would be the sign that till a child is born and grows up, there will be a few difficulties, but after that, all the problems will be solved, and a virgin sha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Behold, the virgin shall be with child, and bear a Son, and they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which is translated, "God with us.(Matt 1:23)" The angel of God appeared to Joseph who hearing of the news that his betrothed Maria was with child, resolved to divorce her quietly. The angel informed her that the baby in Mary's womb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and the baby's name (Immanuel) and its meaning. In the days of Isaiah and also of Joseph a prophecy that a virgin shall be with child was not known as referring to the pregnancy by the Holy Spirit. When a certain thing is not likely to happen, or looks of no use because it happens too late, we can feel difficulties in waiting. However, saints are people who believe that God's promise may not be broken and that they can wait for the promise to be fulfilled with hope. If God is with them. the waiting time is also the time with God, so the waiting itself turns into meaningful every day. That's why we call it the Biblical waiting that we welcome the day with God by going with God and filling the present meaningfully, not simply looking forward to days ahead without doing anything.

Unlike the first prophecy which focused on the sign, the second prophecy explains concretely what the child to be born is like. "Nevertheless the gloom will not be upon her who is distressed, As when at first He lightly esteemed The land of Zebulun and the land of Naphtali, And afterward more heavily oppressed her, By the way of the sea, beyond the Jordan, In

Galilee of the Gentiles. The people who walked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Those who dwelt in the land of the shadow of death, Upon them a light has shined.(Is 9:1-2)" The baby comes to be born in the background of darkness where compatriots wage war between them and are divided. "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Is 9:6)" I bless that you will receive by waiting the amazing proclamation that the light of life shall be shone breaking through the darkness by the birth of Jesus.

How the prophet waited

"There shall come forth a Rod from the stem of Jesse, And a Branch shall grow out of his roots. The Spirit of the Lord shall rest upon Him, The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and might, The Spirit of knowledge and of the fear of the Lord.(vs 1-2)" "The one who was to come as a descendant of Jesse was no other than Jesus. "The Spirit of the Lord God is upon Me, Because the Lord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tiding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heal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the opening of the prison to those who are bound;(Is 61:1)" The scripture Jesus read in the synagogue of Galilee where he began his public life is the very Isaiah 61(Luke 4:18). Jesus showed the person prophesied in Isaiah 11 and 61 is the very himself. "His delight is in the fear of the Lord, And He shall not judge by the sight of His eyes, Nor decide by the hearing of His ears;(v.3) I hope the fear of the Lord is our delight and that the spirit of the Lord is with you and me. I bless that you worship God with heart, living with the attitude of worshipping even in the world as people of God, and longing for 'worship service' where you come again before God more and more.

The appearance where the wolf shall dwell with the lamb, and the leopard shall lie down with the young goat and no problem happens even when the calf and the lion are together(vs 6-10) indicates the amazing peace which will happen when Jesus comes. "The Lord your God in your midst, The Mighty One, will save;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gladness,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Zeph 3:17)" I hope you and I wait singing for God who loves us calmly and rejoice over us. "Behold, at that time I will deal with all who afflict you; I will save the lame, And gather those who were driven out; I will appoint them for praise and fame In every land where they were put to shame. At that time I will bring you back, Even at the time I gather you; For I will give you fame and praise Among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When I return your captives before your eyes," Says the Lord.(Zeph 3:19-20)" The restored image of a saint who waits for the time of God is 'praise and fame'. Sometimes, waiting can be a shame that you wish to wipe or it can be a time like a humiliation of losing a competition. Nevertheless, since God promised our name will never be destroyed, you will believe not only failure and oppression but also the appearance of life which you want to erase is the time of waiting to encounter with God. That's why the people of the world who think defeat and falling are the end and saints who believe in the covenant of God can not but be different from one another. If you proceed believing that God will hold and restore you, you can lose beautifully when you have to and you can let go nicely when you have to.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will move forward believing there is surely the time when the covenant of waiting that restores praise and fame will be fulfilled.

2023년 성경통독 수료식

우리 총현교회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12월 8일 금요일집회시, 2023년 성경 통독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2023년 전교인 성경통독은 지난 1월 29일, 통독 순장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1월 18일까지 총 42주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인 참여자 2879명 중 2511명이 완독(완독률 87%)하였고, 완독자 중 1독을 하신 분은 652명, 2독을 하신 분은 1859명이었습니다(12.8.기준). 교회학교에서는 182명이 완독하였으며, 그 중 59명은 3대가 완독하여 성경통독의 의미를 고취시켰습니다. 특별히 이번 통독에는 에바다부와 사랑부도 함께 참여하여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되는 설립 70주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통독 완독객자는 윤명식 은퇴장로님, 3대가 모두 완독한 가정대표 이지은 어린이(유치부), 에바다부 통독자 대표 계영일 집사님이 통독자 대표로 수여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한국교회에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의 유익함과 사례를 나누는 리딩지저스 컨퍼런스 2023을 위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 설문참여자 중 99.6%가 성경통독이 유익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9.2%는 1독 보다 2독이 더 유익했다고 답변했습니다.

■ 매우 그렇습니다 ■ 그렇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진행한 성경통독(2독)이 당신에게 유익했습니까?

77.2%

22.4%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통독을 1독 할 때보다 2독 할 때 더 유익했습니까?

61.5%

37.7%



2023년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를 통해 온 교회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에도 전교인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는 계속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교회학교 성탄축하 찬양예배

올해 교회학교 성탄축하 찬양예배는 "참 빛, 세상을 비추다(요1:9)"라는 주제로 어두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총 7개 부서가 찬양 및 악기연주, 율동과 무언극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성탄축하 찬양예배를 통해 충현의 미래세대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온 교회가 소망을 품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일 행사 사진을 나누며, 아름답고 풍성한 찬양을 준비한 모든 학생과 부모님 및 선생님께, 그리고 행사 준비를 주관한 유년부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영아부



△ 유아부



△ 유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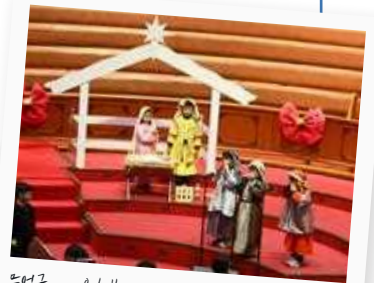
△ 유년부 & 초등부 율동



△ 중·고등부 오케스트라



격려 말씀



무언극 - 유치부



사회



△ 유년부 &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



2024년 신임 서리집사 명단

1교구	남	권순구	김동욱	김재일	2교구	남	이승호		
	여	박선영	오은영	여		백승애	백승원	허선옥	
3교구	남	조경남							
	여	김수정	신옥경	이소연					
4교구	남	김진웅	김창민						
	여	권신영	김은영	유연주	장혜지	허 람			
5교구	남	김형철	김흥국	박 문	박철홍	송효식	이동훈	이종윤	이준원
		장성익	전동주	정성윤	허영희				
	여	김경희	심미정	윤영은	윤이순	이연주	전영미	허정인	황선영
6교구	남	윤병천	이동훈	이홍재	전성백	황금산			
	여	김사라	김소연	이한나					
7교구	남	김현철	배수곤	8교구		남	김완주	김정윤	임민섭
	여	김경희	이재금			여	김하원	이기쁨	
9교구	남	길재호	김민호	김홍배	정승욱	최성호			
	여	박영혜	신수안	이혜경	최혜림	한옥분	함은숙	홍원희	
10교구	남	박정훈	윤재춘	조승철	한상현				
	여	강인숙	김영순	김지혜	최수현				
11교구	남	고윤석	김승태	김정호	동광수	박상우	이영호	주재훈	홍영기
	여	김경의	김천희	박정현	배은혜	백경숙	송선주	안소윤	안은희
		오정숙	윤이나	이근영	이면선	이명숙	이수연	전 옥	주영미
		최인아	최혜진	한정숙	함미경				
12교구	남	김민준	김창민						
	여	김성원	박영진	박현주	양주영	윤현하	현옥련		
청년1부	여	장효민							
청년2부	남	권법중	김승두	김종욱	김준혁	노태영	문영진	오현석	임충규
		정문중	최현호	한성민					
	여	강청솔	김조한	김주원	김한나A	김한나B	박보미	박지윤	박지혜
		박지홍	이세라	임하늘					
청년3부	남	강인수	박영일	윤종문	이종훈	조규연			
	여	박진영	신정현	심경하	허진아	홍다은			
브릿지	남	김병철	박종선	양승규	유병현				
	여	이주아							
신혼가정부	남	강태욱	김대현	석광원	신승화	정태준	홍승표		
	여	김은혜	박미리내	정승원	채은수				
사랑부	남	김성수	문현준	에바다부	남	김태욱	임우찬		
	여	박미정	송정민		여	김메리	김미진	김민정	임희진



새가족 환영회 후기

안녕하세요. 새가족 양육부를 수료한 김경옥이라고합니다. 많이 긴장도 되지만 가슴 한 편엔 뜨겁게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제가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신앙고백을 하게 되리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총무로 성전에서 고 김창인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고, 청년부에서 이따금씩 기도원도 가고 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성경읽기나 기도생활없이 주일예배 출석에 스스로 만족하던 중, 결혼하여 두 아이와 함께 1991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신앙생활은 한국에서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무늬만 성도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할 줄 몰랐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결정할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점점 예배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했지만, 제 생활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히려 많이 동떨어진 삶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미국에서 결혼하고 2013년에 귀국하여 작은 비즈니스를 하다가 10년만인 2023년에 내려왔습니다.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살면서, 교회는 잊혀진 채, 살기에만 급급했던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친정 어머니께서 “이제 그만 쉬고 교회가야 되지 않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하셨나 봅니다. 엄마의 권유에 마음이 움직였고, 청년때 다녔던 충현교회 새가족부에 등록했습니다.

청년 때 드나들었던 그 많은 세월 뒤로 하고, 처음 다니는 기분으로 하나님을 다시 알아보자하는 맘으로 새가족 양육에서 성경공부를 시작했고, 선생님과 성경말씀을 배우면서 ‘와 이런 거였구네!’, ‘아 그런 뜻이었네’라며 눈과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이전엔 제가 우리 밖의 양인 듯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밖에 있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말뿐만 아니라 제 마음 깊이 하나님 항상 계시고,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고백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양육해주신 새가족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하며, 저를 기억해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 성도

장로·안수집사 연합기도회

지난 12월 1일 금요일집회 이후, 충현 기도원에서 장로·안수집사회 연합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121명의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먼저 기도로 연합하고 나아가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2월 입적자 명단 ※ 충현의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본과정 수료자(25명)

강병권 백미나 김종민 송미경 조혜정 김은혜 김남훈 정민혜 김아윤 구홍진 박지영
구다은 구다빈 김병순 최명희 신창희 임숙희 유한성 신언주 김승남 박송웅 김중호
안경자 박성호 송민정

교육위원회(7명)

박태원 조하은 강규원 성이안 류슬아 김대원 박수현

차세대위원회(10명)

이예진 한수아 김하은 윤영진 민승빈 최승민 신지현 정준영 김태은 이종현

2024년 찬양대원 및 오케스트라대원 모집

2024년도 충현교회 찬양대원 및 오케스트라대원으로 섬길 분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자격: 본 교회 등록 세례교인으로 찬양에 은사가 있으신 분

신청기간: 2023.12.17(주일) ~ 12.31(주일)

문의: 찬양위원회 간사 (☎ 02-552-8200 내선 261, 010-2303-1063)

모집찬양대	구 분	예배담당	연습시간	비 고
	임마누엘찬양대	주일 1부예배	토 11:00 / 주일 07:15	
	할렐루야찬양대	주일 2부예배	토 10:00 / 주일 09:00	
	아멘찬양대	주일 3부예배	토 10:00 / 주일 10:30	
	벧엘찬양대	주일 찬양예배	주일 13:00	
	호산나찬양대	수요 1부예배	수 09:10	여성찬양대
	예루살렘찬양대	금요집회	금 17:30 / 주일 13:00	65세 이상

교회 공사관련 통행제한 안내

1. 본당 지하1층 주차장 공사

일정: 2023.12.11.~ 2024. 1.16

본당 지하2층은 사용가능(통행은 본당 내부계단, 선교관 지하계단, 교회외곽 인도 이용)

2. 제1교육관 엘리베이터 공사

일정: 11인승 교체(2023.12.14 ~ 2024. 1.12) 16인승만 사용가능

16인승 교체(2024. 1.12 ~ 2024. 2. 8) 11인승만 사용가능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오며 교우 여러분의 많은 이해바랍니다.

<가족 등록>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119	김보연	기본과정	
2	2122	선은지	기본과정	박영민
3	2123	전진서	기본과정	김영아
4	2124	염소망	기본과정	
5	2136	김명화	기본과정	
6	2141	김주는	기본과정	강신자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126	노형훈	기본과정	
2	2127	강혜경	기본과정	
3	2129	노지영	청년2부	
4	2130	노원희	청년2부	
5	2131	장영재	기본과정	
6	2132	서동희	기본과정	
7	2133	장하은	중등부	
8	2134	장하민	초등부	
9	2139	김주미	청년2부	
10	2140	김근형	고등부	
11	2142	김동욱	기본과정	
12	2143	이애나	기본과정	

별 세

- 이명재 타교은퇴권사(김선아 성도의 모친·권철순 집사의 장모, 3교구)/8일 별세, 10일 장례
- 전은숙 은퇴집사(6교구)/9일 별세, 12일 장례
- 이순규 씨(김형옥 집사의 모친·김중수 집사의 장모, 8교구)/10일 별세, 12일 장례
- 이상범 타교선교사(이행숙 사모의 남편)/11일 별세, 16일 장례

금주 단기선교 파송(미얀마 3팀)

전도지역	팀장 및 파송인원	기간
미얀마 양곤	조성수 안수집사 외 8명	12월 21일(목) ~ 26일(화)

권사회 전체 총회

일사: 12월 20일(수), 12:00, 본당 및 실시간 영상

예배 담당(12/20~12/24)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12/20	수요 I	소돔성을 탈출하라 (창 19:12-22) 권혁근 목사	이영국	최경애
12/22	금요집회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벧전 1:8) 박요셉 목사	박영환	
12/24	주일 I	기다림의 절정, 마리아 (눅 2:34-35) 한규삼 담임목사	신경철	최규옥
	주일 II		문진호	장철규
	주일 III		윤준식	송문식
	주일찬양	주님의 용서에 대한 교훈 (마 18:21-35) 최준호 목사	남성경	김동석

※ 설교제목과 본문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교구별 주력새벽기도(12/18~12/24)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18 (월)	김주한/이영남	욥 40:1-24	11교구
19 (화)	한규삼/김성호	욥 41:1-34	전교인
20 (수)	김승래/홍순혁	욥 42:1-17	전교인
21 (목)	정석훈/공석생	빌 1:1-11	8교구
22 (금)	박성덕/유지철	빌 1:12-24	전교인
23 (토)	이영국/이영국	빌 2:5-30	전교인
24 (주)	이다현/이다현	빌 3:1-11	전교인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 전 9:00	본 당
	II 오 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 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 후 3:30	본 당
수요예배	오 전 11:00(본당)	
금요집회	오 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 전 5:00	갈릴리홀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 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②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금주 화요집회 강사: 윤준식 목사

금주 기도원 봉사: 2교구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성경아카데미	12:20~13:30 (에스라)	디도홀(제1교 401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12:40~13:40 (아볼로)	디모데홀(제1교 304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새가족기본과정부	오 후 12:10	베다니홀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새가족양육부	오 후 12:10	엠마오홀
청 년 1 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11교구	오 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청 년 2 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어와나부	19:10~20:50(금요집회시)	제2교육관 4층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예꿈 양육부	(주) 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청 년 3 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12교구(르루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예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충현평생대학원	(목) 오 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사무장로

임창식 행정위원	신광철 행정위원	이상석 행정위원	오순도 소망부장	양기수 충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교구위원장	이성섭 재정위원	장철규 건축위원	이보신 새가족위원	이상해 기도원원감
김성호 행정위원	조종민 전도위원	이상복 봉사위원	지규성 선교위원	최민석 선교위원
김명성 이멘찬양대장	이창희 행정위원	백봉선 재정위원	박재현 행정위원	임광신 예배위원
이흥기 감사위원	송한천 5교구장	조윤준 할렐루야찬양대장	최현규 건축위원	남용승 봉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	변창대 세울위원	허만선 충현동산이사장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전도위원
양효민 당회서기	박원화 봉사위원	이상배 당회서기	박명근 8교구장	김종훈 건축위원
송영상 성경통독부장	전성욱 건축위원	박건일 4교구장	배종락 선교위원	김철남 안내부장
김희동 3교구장	홍금성 새가족위원장	강태영 외선부장	장기락 벧엘찬양대장	홍순길 교육위원
정인욱 기획위원장	남중호 차세대위원장	윤순규 1교구장	김상열 찬양위원	이경환 6교구장
이양선 헌금부장	박성철 11교구장	김열환 예배부장	김세종 선교위원	한홍연 임마누엘찬양대장
최규옥 7교구장	최승민 재지교육훈련부장	이석재 평생대학원장	송문식 중부기도부장	문영규 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신현욱 차량안전부장	임병익 사랑부장	박노익 12교구장	

■ 목사

이기영 목회연구	강성은 선교위원회	김주한 11교구	이성환 12교구	권혁근 7교구
윤성복	박동진 2교구	문진호 3교구	정석훈 8교구	김유석 예바다부
김상래 브릿지	전영재 10교구	박영환 6교구	위안복 4교구	윤준식 5교구
임대영 9교구	신경철 초등부	임진실 사랑부	김승래 신혼가정부	배진현 주간충현
박성덕 청년2부	권순동 1교구	박요셉 청년3부	이다현 중등부	이일영 청년1부
이영국 새가족	남성경 고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10교구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 교육목사

선명환 외선부	최준호 소망부			
------------	------------	--	--	--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이영미 유치부	박예령 영아부		
------------	------------	------------	--	--

■ 협력선교사

강기엽	윤재균	윤맹범	강영미	한용관
최동현				

■ 헌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란자야	라우단다쉬	
베 뽅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

■ 자원선교사

강영기	김경성	김신숙	김영암	김형진
박태연	안석렬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요섭	홍정화		